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투자전략 | 2026.02.13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Weekly

Analyst 신얼 | 투자전략 02-3779-3184, e.shin@sangsanginib.com

Analyst 김경태 | 글로벌 전략/디지털자산 02-3779-3427, kt.kim@sangsanginib.com

Analyst 최예찬 | 원자재/외환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RA 강혜성 02-3779-3475, hs.kang@sangsanginib.com

상상인증권

CONTENTS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Summary 3

1. 주식 6

2. 채권 12

3. 부동산 13

Summary

주간 자산시장 동향 & 체크포인트

위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투심

'안전 대피소' 간판을 다시 단 미 국채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 가격 조정 국면이 길어지자, 투자자의 자금 대피를 위한 자산으로서의 안전자산 매력이 커지고 있다. 압도적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금인데, 폭발적 가격 상승 이후 변동성에 노출된 점이 작금의 국면에서 안전자산 매력도가 일부 저하되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평가한 미 국채시장에 대해서 투자자의 시선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케빈 워시발 변동성은 내재하고 있으나, 지명 이후의 불확실성은 일부 경감되면서 향후 발언을 대기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미 달러화는 주 초반 하락 후, 96~97pt를 횡보 중이다. 엔화의 절상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치의 유지는 미 국채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지지한다.

미 국채 금리 '25년 4Q 수준으로 하향 복귀
1) 위험자산 회피 성향
2) 강한 응찰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10%까지 하향 됐다. 주간 기준, 10bp 하락했다. 지난 12월초 수준으로 복귀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3.95~4.20% 레벨 등락을 지속한 후 연초에 미 국채 금리는 4.10~4.30% 레벨로 급등한 바 있다.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이 미 국채 시장 약세를 견인하였는데, 이를 되돌린 것은 나스닥의 급락 연출에 따른 '안전 대피소' 수요를 자극하면서 미 국채 시장 강세장을 이끌었다. 금주에 있었던 미 국채 10년물 입찰에서 양호한 응찰률과 함께 시장금리 대비 하락한 낙찰 금리 등이 달라진 미 국채 시장 흐름을 반영한다. 미 국채 2년물 금리 역시 전주대비 5bp 하락하면서 3.45%로 하락했다. 장기채 중심의 금리 하락세로 커브는 평탄화해졌고,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 가능성이 되살아난 주간이다.

안전 자산 선호 현상 확대로 나스닥 중심의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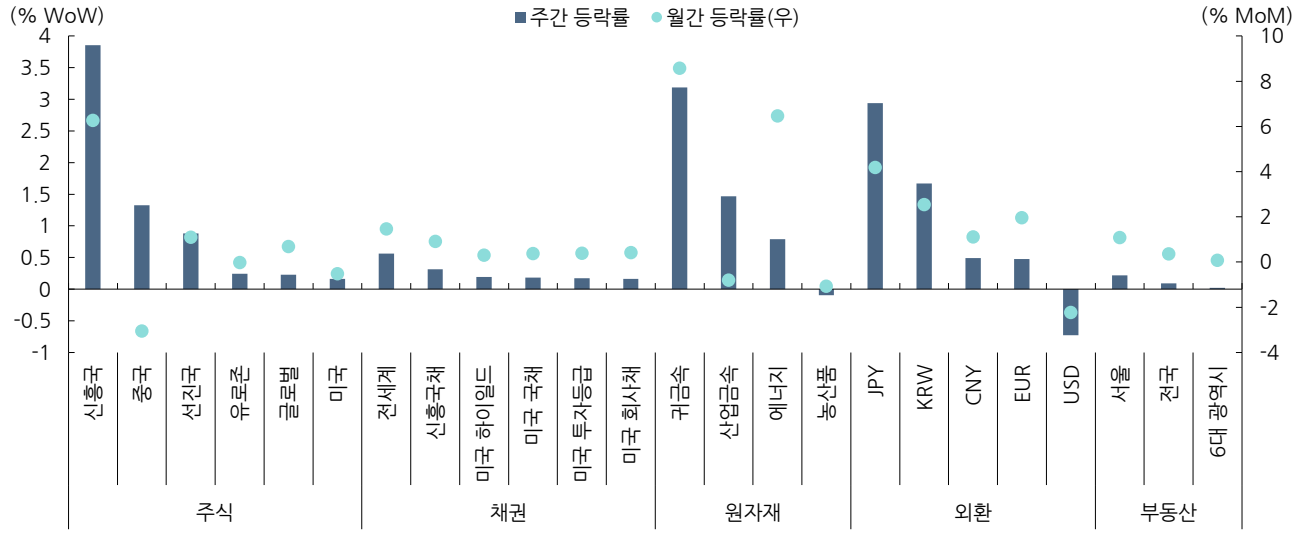
섹터 로테이션 관측 후 지속성

반면, 나스닥 중심의 뉴욕 증시는 약세장을 면하지 못 했다. AI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한층 강화되었는데, 그간의 AI 산업 발전에 기대어 올랐던 관련 업종의 주가를 빠르게 되돌리고 있다. 여전히 SaaS발 위협은 존재하고 있다. 클로드 코워크의 등장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이 느낀 우려감은 잠잠해지고 있지 않다. 법률, 세무, 재무 등에 이어서 금주에는 시스코, 쇼피파이 등까지 확산되었다. 하이퍼 스케일러는 막대한 투자규모의 집행이 확실시되는 반면, 수익은 불확실하기에 그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활황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파죽지세와 더불어 엔비디아 주문 수주 논란에 휩싸인 마이크론 역시 논란을 반박하면서 강한 흐름을 연출 중이다.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증시의 레벨은 답보가 되었고, 가치주, 자산주, 경기 방어주와 같이 안정적 주가 기대감이 높은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형성되었다. 당분간 위험 선호 현상의 위축에 의한 숨고르기 국면 연출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일본 엔화 조기 총선 이후 되돌림 절상

전주말 일본의 조기 총선이 마무리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총리의 정치적 승부수가 맞아 떨어졌다. 강한 일본 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진폭이 엔화의 가치에 대한 주요 변수로 작용 중이다. 일단 금주는 엔화 약세 우려가 완화되게끔 총리의 시장 신뢰 발언에 2% 이상 절상되었다. 또한,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및 증시로의 외인 자금 유입 등이 이를 지지하기도 했다. 달러당 150엔대에서 비교적 변동성 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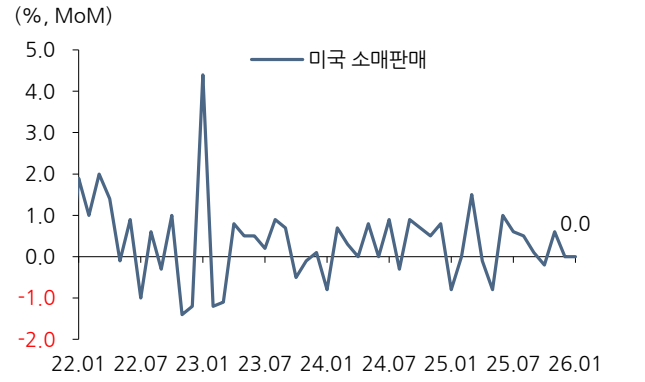
그림 1. 자산별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부동산원,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지표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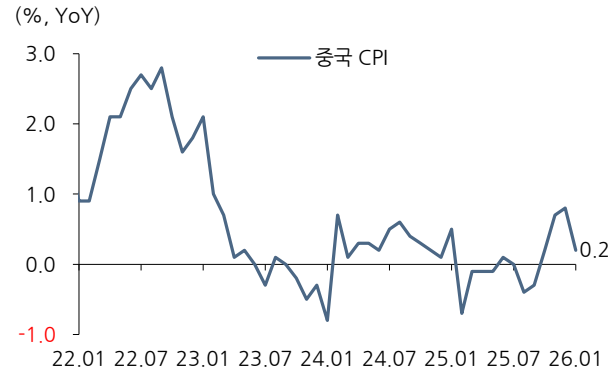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12월 소매판매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미국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0%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0.4%)와 전월치(0.6%)를 모두 하회
- 변동성이 큰 자동차, 휘발유 등을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1% 감소했으며, 전월치는 0.4%에서 0.2%로 하향 조정
- 건축자재점, 스포츠용품점 등 일부 품목에서만 증가세가 확인되며 소비자 지출이 다소 위축된 모습
- 미국의 최대 소비 대목인 연말임에도 부진한 소매판매 결과에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인 소비 약화 우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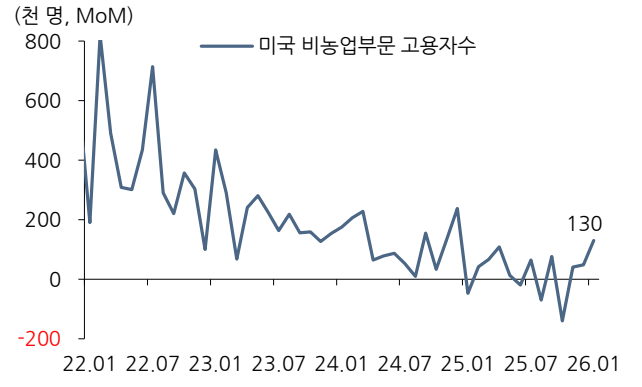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1월 CPI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1일(현지시간)에 발표된 중국 1월 CPI는 전년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0.3%)와 전월치(0.8%)을 모두 하회
- 1월 식품 가격은 전년대비 0.7% 하락했으나, 비식품 가격이 0.4% 상승하며 전반적인 1월 CPI 상승을 견인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최대 명절인 춘제가 지난해에는 1월에 포함된 것과는 달리 올해는 2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 여기에 국제원유 가격 변동으로 에너지 가격이 전년대비 5.0% 감소한 영향
- 작년 연간 CPI는 0.0%를 기록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 둔화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여전

그림 3. 미국 1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미국 1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전월대비 13만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6만 6천명)를 큰 폭 상회
- 25년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기존 5만 6천명에서 4만 1천명으로,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기존 5만명에서 4만 8천명으로 하향 조정
- 세부적으로 헬스케어(8만 2천명), 사회지원(4만 2천명), 건설 부문(3만 3천명)이 1월 고용 증가를 견인
- 이에 시장에서는 상반기 내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전망 확대

1. 주식

결국 반도체로 귀결되는 코스피 투심

국내 증시는 반도체 상승 지속과 순환매 패턴이 이어지며 강세장 시현

KOSPI는 전주대비 +8.51% 상승한 5,522.27.pt를 기록하였다. KOSDAQ은 전주대비 +4.18% 상승한 1,125.99pt를 기록하였다. 금주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매크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흔들리는 분위기에서도 반도체, 전력기기, 태양광, 우주 테마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며 강세장을 시현했다. 다만, 지수 전반의 상승 흐름과 별개로 전주에 이어 순환매 장세 역시 확인되는 한 주였다. 실적개선과 주주환원 기대감에 상승한 금융주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이를 제외하고 유통, 건설, 에너지 등이 업황 개선 기대감에 급등했고, 전주 상승했던 호텔/레저 및 유틸리티 업종은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세를 시현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의 HBM4 양산 기대감이 반도체 투심을 개선, 2월 초 반도체 수출 역시 호실적을 기록한 점이 증시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정책발 증시 부양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장을 시현했다. 특히 바이오, 로봇 등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다소 조용한 분위기에서 코스피와의 갭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목요일 정부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개혁안을 발표, 일명 '동전주'로 불리는 주가 1,000원 미만의 주식들이 급등락세를 시현했다.

KOSPI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며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은행(+14.1%), 통신(+12.8%), 증권(+12.4%)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유틸리티(+0.1%), 호텔/레저(+1.8%), 조선(+2.3%) 섹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상승을 보였다.

중국 증시는 AI 기술주 주도 하에 강세장을 시현

상해종합지수는 전주대비 +1.68% 상승한 4,134.02pt를 기록하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주대비 +1.78% 상승한 27,032.54pt를 기록하였다. 금주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물가 지표 발표를 소화한 가운데 춘절을 앞두고 기술주가 상승랠리를 이어가며 강세장을 시현했다. 글로벌 AI 투심 개선과 함께 반도체, 광모듈 등 AI 수혜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인되었다. 또한 바이트댄스의 AI 영상 생성 모델 Seedance 2.0이 호평을 받으며 중국 AI랠리는 더욱 강하게 이어졌다.

한편, 주 중반 발표된 1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예상치 +0.3%)하였고, PPI는 -1.4%를 기록하며 예상치(-1.5%)를 하회했다. 소비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치지는 못했으나 시장은 낮아진 기대치 속 플러스(+)흐름을 이어가는 점에 주목하며 제한적 움직임을 보였다. 그 가운데 아시아 증시 전반에 이어지는 매수 흐름과 중국인민은행의 내수진작 정책 발표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상해 증시는 소재(+6.1%), 정보기술(+5.2%), 커뮤니케이션(+4.6%)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필수소비재(-2.3%), 경기소비재(-0.7%), 금융(-0.6%) 등은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미국 증시 : AI 창조적 파괴 수혜주 / 피해주의 희비 극명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 속 AI 소프트웨어 개발/시장 붕괴 시나리오에 집중

S&P 500 지수는 전주대비 -1.44% 하락한 6,832.76를 기록하였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주대비 -1.32% 하락한 49,451.98pt를 기록하였다. NASDAQ은 전주대비 -1.88% 하락한 22,597.15pt를 기록하였다. 금주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는 1월 비농업 고용(NFP) 보고서였다. 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되었던 동 지표는 +130,000명으로 컨센서스(+53,000명)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실업률은 4.3%로 예상치(4.4%)를 하회하였다. 12월 수치도 하향 조정되어(+48,000명) 고용시장의 "약하지만 회복 중"이라는 내러티브를 지지하였다.

한편, 전주 Claude Works/Code로 촉발된 "Software Armageddon"의 여파가 금주에도 지속되었다. AI 디스럽션 우려가 물류, 상업용 부동산 등 전통 산업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 증거로 전주 상승률 상위 15 종목 (Vertiv, Coreweave, Credo, Nebius 등) 중 다수가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력·냉각·클라우드·네트워크 장비 등)에 포진해 있어, 시장이 AI의 "수익성" 에는 회의적이되 "인프라 투자" 자체에는 여전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전주 수익률 하위 15 종목(Icon, Affirm, Zillow, Unity 등)은 대다수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으로, AI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시장의 혁신적/창조적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다.

IT 하드웨어 기업도 다소 부진했는데, Cisco, IBM 등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한 기업의 주 원인은 연간 비용 가이던스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는 금주 시장의 핵심적 양면성을 드러낸다. AI는 한편으로는 인프라 수혜주(반도체, 데이터센터)에 강력한 상방 동력을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구조적으로 재평가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두 축 사이에서 포지셔닝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종목 간 괴리가 다소 확대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통신(+5.9%), 유틸리티(+4.3%), 부동산(+3.7%)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은행(-6.7%), IT SW(-4.7%), 금융(-4.3%) 등에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2025 4분기 실적시즌 중간 평가: AI 인프라 주도주 장세 복귀

2025년 4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AI 관련 인프라, IT, 산업재 업종이 예상치를 상회.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 부진 지속

Q4 2025 실적시즌이 중반을 넘기며 S&P 500 블렌디드 이익성장률은 13.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주 11.9%, 분기 말 추정치 8.3%에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된 수치로, 확정 시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익성장이 달성된다. 11개 섹터 중 9개가 전년동기비 이익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보기술, 산업재, 커뮤니케이션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재와 헬스케어는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소비재 역성장은 고금리 환경에서 저소득층의 가격 민감도 증가와 부채 비용 상승에 기인하며, "easy money" 시대의 종료가 이 섹터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출 측면에서는 73%의 기업이 컨센서스를 상회(5년 평균 70%, 10년 평균 66%)하고 있으며, 10개 섹터가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만이 유일하게 매출 역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효과이며 실제 이익률은 견조하다. 2026년 연간 이익성장률 전망치는 14.1%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인플레이션 안착, 6월 금리인하, AI 투자의 ROI 가시화라는 낙관적 가정에 기반해 있다.

차주 전망: 월요일 휴장, NY Fed 제조업지수, FOMC 의사록 공개 등

2/14(금): 1월 PPI 발표 (★★☆), 1월 산업생산·설비가동률

2/17(월): 프레지던트 데이 (휴장)

2/18(화): 2월 NY Fed 제조업지수, BKNG 실적 발표

2/19(수): 1월 FOMC 의사록 공개 (★★★)

FOMC 의사록 :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 및 2026년 연내 인하 횟수와 관세 영향력에 대한 내용에 관심

-NY Fed 제조업지수: 1월 Empire State 제조업지수는 7.7로 전월(-3.7) 대비 크게 반등하며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고용지수가 -9.0까지 하락하고, 투입물가지수는 4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기 개선 속 비용 압력 지속'이라는 이중 신호가 뚜렷했다. 2월 지수에서는 이러한 고용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관세 영향이 제조업 체감경기에 반영되기 시작하는지가 주된 관전 포인트다. 같은 날 발표되는 Booking Holdings(BKNG) 실적도 소비 및 여행수요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주목된다.

-1월 FOMC 의사록 공개: 차주 최대 이벤트는 1월 28일 FOMC 회의 의사록 공개다. 주목할 점은 투표 결과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란(Miran) 이사와 월러(Waller) 이사 두 명이 25bp 인하를 지지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10인은 동결에 찬성했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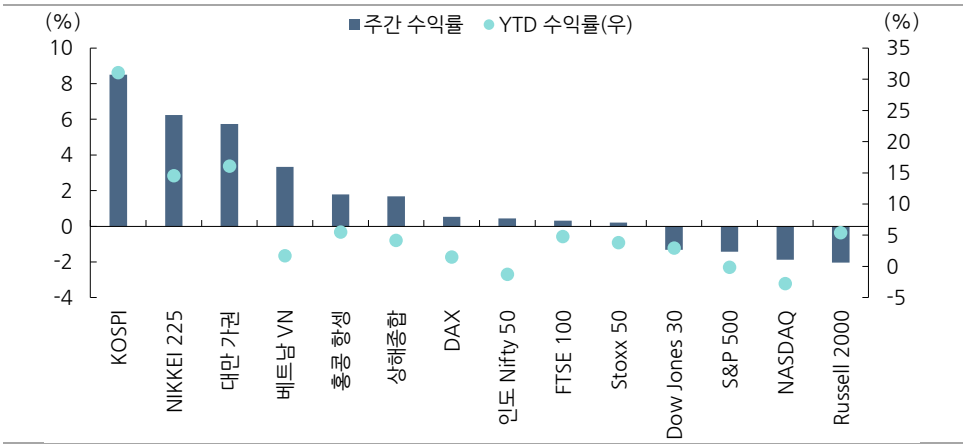
1. 12월 의사록에서 이미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사실상 불필요했을 수 있다"며 동결·인하 간 미세한 판단 차이(finely balanced)를 보였던 만큼, 1월 회의에서 동결 합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결집 정도

2.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 금리 수준은 제약적이지 않다(not restrictive)"고 언급한 배경이 의사록에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이 3% 부근에서 정체되는 가운데 중립금리(neutral rate) 논의 진행 여부도 중요하다.

3. 관세 정책의 물가 영향에 대한 연준 내부 시각 변화도 점검 대상이다. 연준은 관세를 단기적 물가 상승 요인으로 보되 연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위원들 사이에서 보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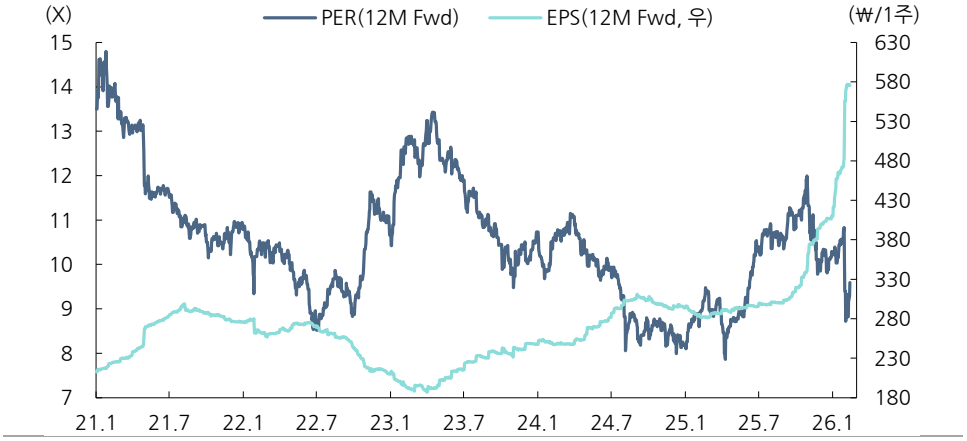
현재 선물시장은 2026년 중 최대 두 차례 인하(6월·12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의사록 내용에 따라 달러 약세 지속과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자신감이 확인될 경우 미국 증시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림 1. 증시별 주간/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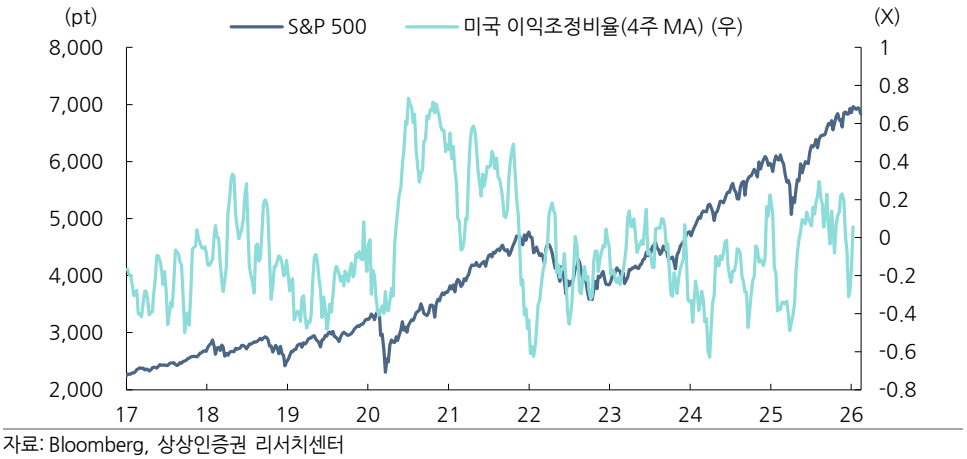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KOSPI 12M Fwd PER,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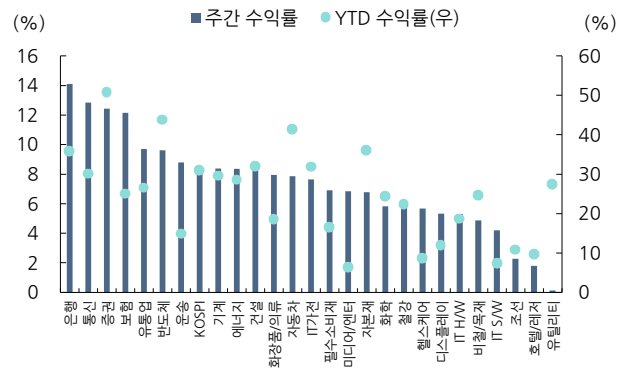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P 500 주가 추이 및 이익조정비율(4주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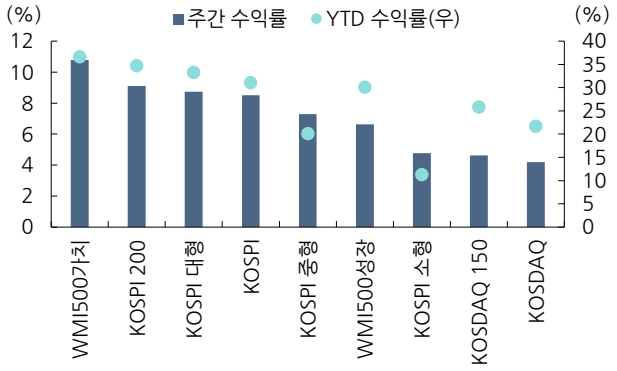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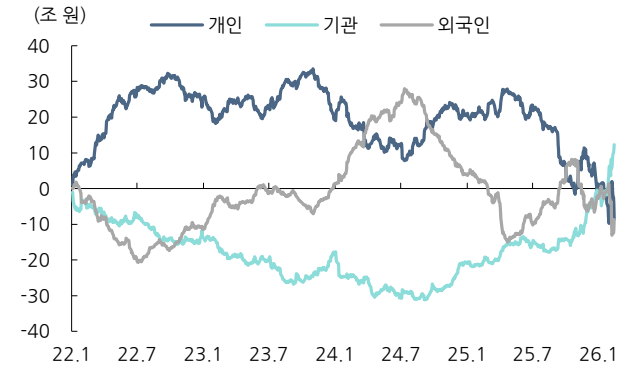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KOSPI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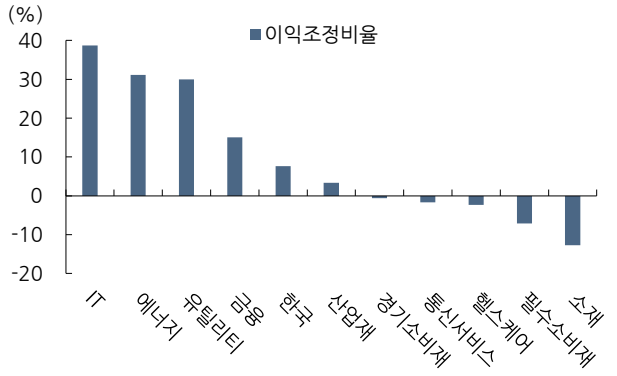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국내 증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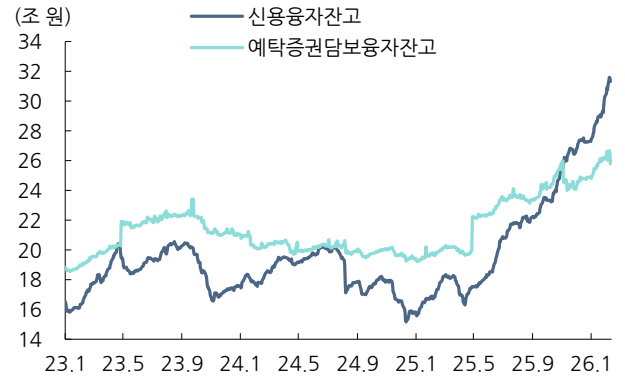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한국 증시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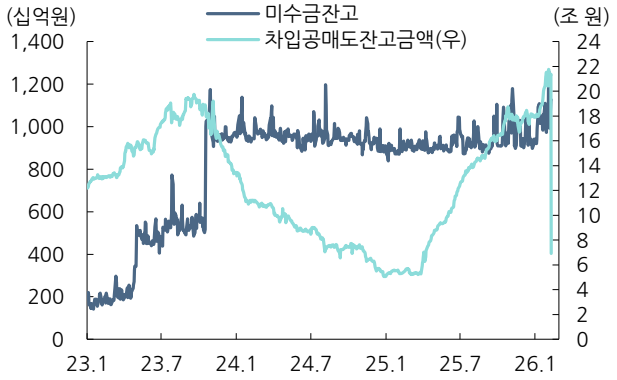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증시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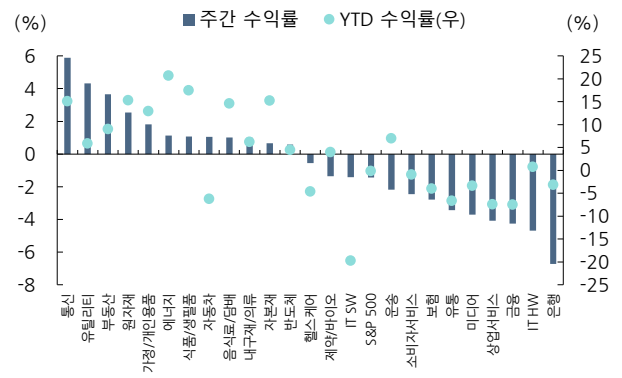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한국 증시 미수금잔고 및 차입공매도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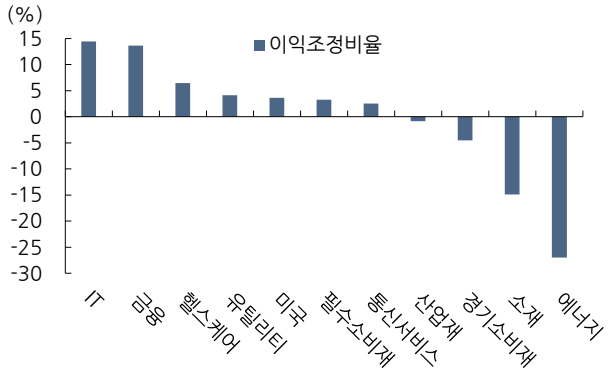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S&P 500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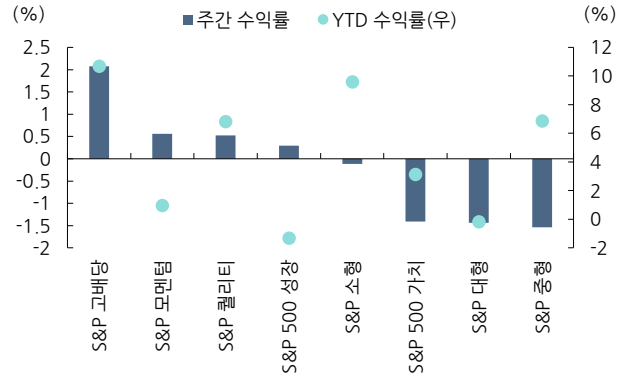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S&P 500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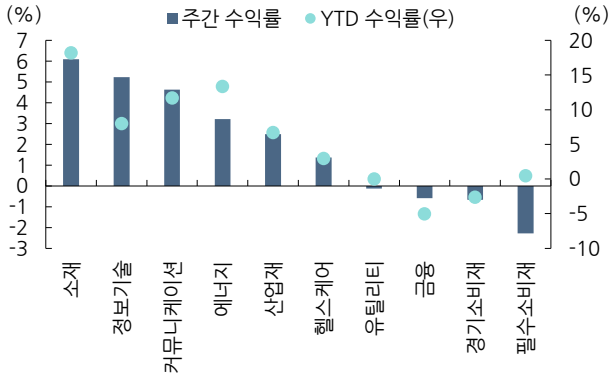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S&P 500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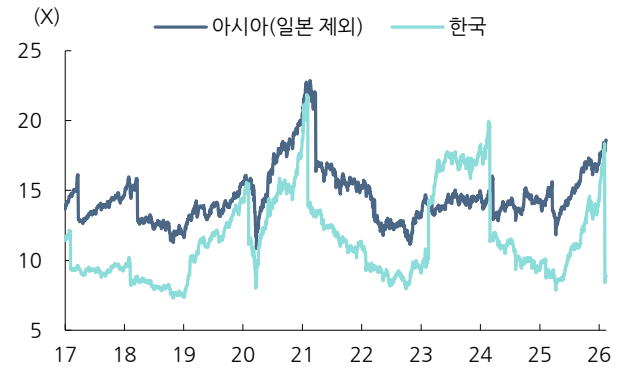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상해종합지수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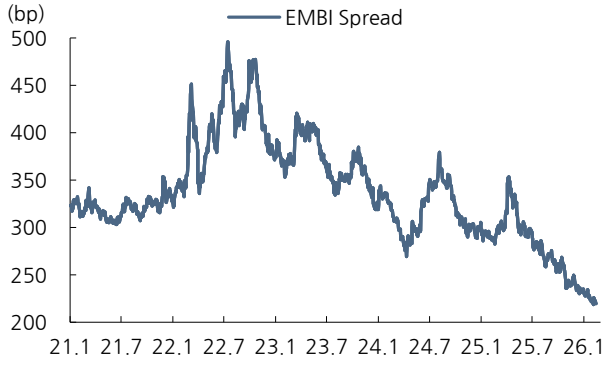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아시아(일본 제외), 한국의 PER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EMBI Spread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2. 채권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고용지표에 금리 상승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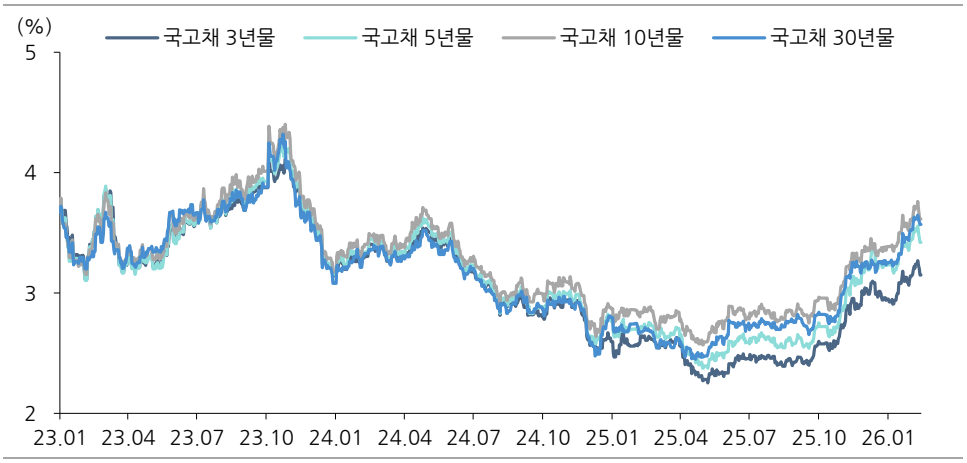
국내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현재 국고채 금리 수준이 과도하다는 평가에 강세 전환

금주 국내 채권시장은 위축된 투심으로 인해 약세를 보이다 한국은행의 구두개입에 강세 전환했다. 주 초반 국고채 입찰 부담 및 중국 금융기관들의 미 국채 익스포저 축소 가능성에 약세를 시현했다. 주 중반에는 예상보다 낮은 고용지표 결과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케빈 헤싯 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미국 1월 고용보고서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제한적 강세를 보였다. 주 후반에는 한국은행의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흐름이 과도하다는 발언에 강세를 나타냈다. 주간 커브는 불-플래트닝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미국 채권시장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고용지표에 약세 시현 후 AI 기술주 급락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되며 강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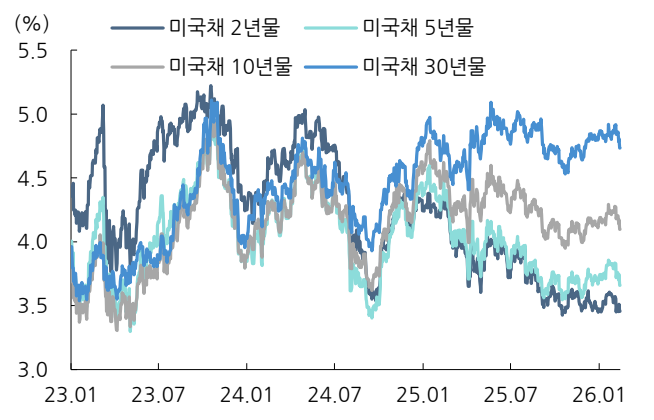
금주 미국 채권시장은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 초반에는 중국 정부의 미국채 보유량 축소 권고 및 알파벳의 회사채 발행 소식에 약세를 보였으나 미국 1월 고용보고서 둔화 전망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세 전환했다. 주 중반에는 부진한 미국 12월 소매판매 및 4분기 고용비용지수에 강세를 시현했다. 이후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미국 1월 고용지표에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약화되며 약세를 나타냈다. 주 후반 AI 기술주 급락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며 강세를 보였다. 주간 수익률 곡선은 전주대비 불-플래트닝을 시현했다.

그림 1. 주요 만기물별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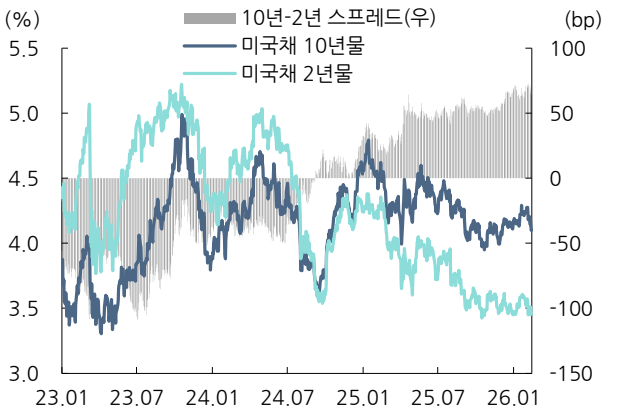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 국채 주요 만기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 국채 장단기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3.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 재개 앞두고 매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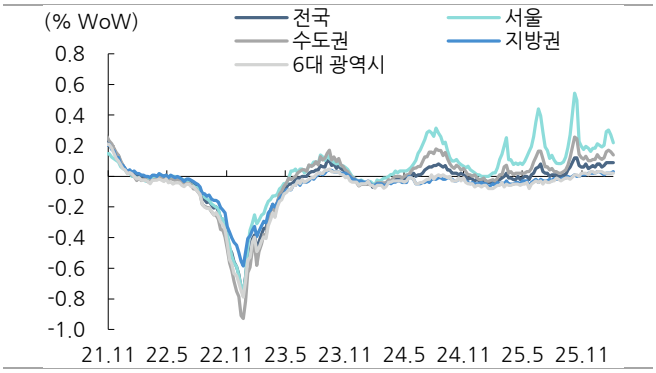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확정

2026년 2월 1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전주대비 +0.09% 상승을 기록했다. 이전 +0.08% 대비 상승폭은 확대되었다. 전세 가격지수는 금주 +0.08%를 기록하면서 전주 +0.08%과 동일한 상승폭이 나타났다. 금주 초반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책 강화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발표,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최근 주요 화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재개가 확정되면서 다주택자 중심 매도압력이 심화되었다.

강남 상승폭 둔화, 경기권은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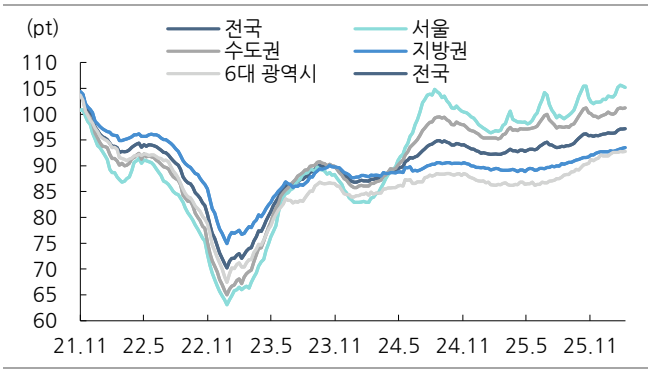
매매시장의 상승 지역은 106개를 기록하며 전주 104개 지역 수 대비 증가했다. 세종시의 등락률은 -0.04%로 전주 0.00% 대비 하락 전환하였다. 한편 강북(+0.25%)의 경우 성북구(+0.39%), 성동구(+0.34%), 동대문구(+0.29%) 등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강남(+0.19%) 역시 관악구(+0.40%), 구로구(+0.36%), 영등포구(+0.32%) 등에서 매매지수가 상승하였다. 인천(+0.03%)의 경우 연수구(+0.18%), 부평구(+0.04%), 남동구(+0.01%) 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경기권에서는 수지구(+0.75%), 동안구(+0.68%), 구리시(+0.55%), 광명시(+0.54%), 수정구(+0.39%) 등 성남·용인 및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림 1.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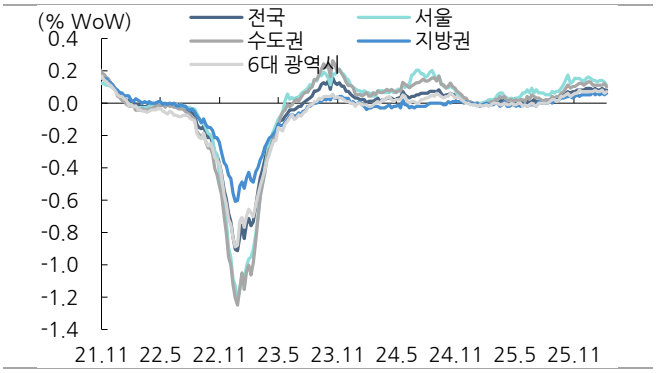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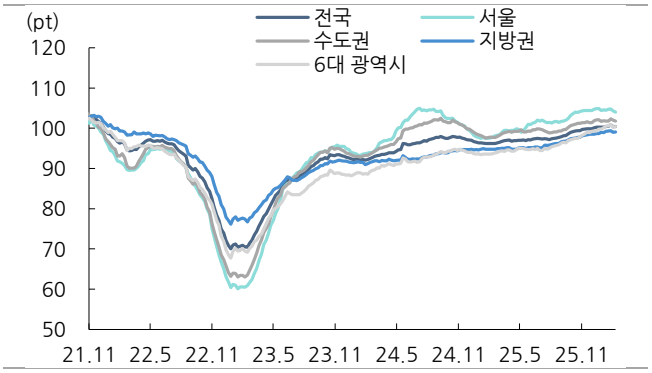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등락률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추이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얼, 김경태, 최예찬, 강혜성)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상상인증권
sangsangin securities